2026.8.14.(금)	**현 지 정 보**	북경사무소

제목	인민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6.2분기)*에 대한 현지 평가

* 세부 내용은 (별첨) “인민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6.2분기)의 주요 내용” 참조

1. 대내외 여건에 대한 인민은행의 시각

□ 인민은행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대내 여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복잡 다변화**되었으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조정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그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银河证券)

2. 통화정책 방향

□ **전반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지난 7월 개최된 **정치국 회의 결과를 유지**

○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정책의 선제성·유연성·정확성 강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연계 강화, 역주기 조절 강도 확대, 기존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추가 정책의 적시 시행 등

□ 다만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인다’는 표현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강화 신호**를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

○ 하반기 중 지준율 및 금리 인하보다는 **기존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의 조정·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평가*(华泰证券, 中金公司)

* 지난 분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지준율 및 금리 인하 문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한다’는 표현이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적시에 조정한다’로 변경

— 구조적 통화정책수단의 지원 대상·자금 투입방향을 최적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정책수단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3. 통화정책 전달경로 개선

□ 이번 보고서에서는 **단기금리 조절체계 개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인민은행은 향후 '**익일물 레포금리**'(DR001)을 중심으로 **단기금리 조절 목표를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익일물 역RP 운영 빈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申万宏源, 银河证券 등)

○ 또한 대출금리 산정기준 다원화, 신용시장 영업행위 규범화, 자금조달 중간 비용 축소 등을 통해 정책금리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로 이어지는 전달 경로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대출 증가율 자체보다 대출·채권·주식 등 다원화된 자금조달 구조와 금융지원의 질·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中金公司)

4. 거시건전성 체계 개혁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기존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을 개선'한다는 표현을 '**금융수단을 혁신한다**'로 강화한 점에 주목하면서(申万宏源 등), 일각에서는 대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리스크 관리수단이 추가될 가능성**을 제기(华福证券)

○ 특히 은행간시장 데이터 보고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시장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화정책 운용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中银证券)

○ 한편 구조적 통화정책수단 역시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는 실제 자금 사용현황과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中金公司)

5. 위안화 가치 안정 및 환율 탄력성 유지

□ 환율정책 관련 문구가 1분기 보고서와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된 점에 주목하면서, 현재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 수준과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中银证券)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존의 환율 탄력성 유지 및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방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위안화 가치를 바탕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申万宏源, 中银证券)

(별첨)

인민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6.2분기)의 주요 내용

1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1 공개시장운영정책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수행

□ 인민은행은 역RP(역환매조건부매매),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국채 매매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 총량과 시장 금리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

○ 상반기 누적 MLF 운영규모는 3.5조 위안(6월말 기준 잔액 7.4조 위안, 연초 대비 +1.15조 위안)이었으며, 국채 매매(2분기 중 1,000억 위안 순매수, 상반기 누적 3,000억 위안 순매수)를 통해 정부채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

○ 아울러 2분기중 임시 Repo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6월말에는 처음으로 익일물 역RP를 처음 도입하면서 공개시장 운영수단을 더욱 다양화

* 기존 상한 RP 7일물 + 50bp, 하한 RP 7일물 -20bp의 '비대칭 구조'에서 '대칭구조'(RP 7일물 ± 25bp)로 전환

□ 지방금융기관의 필요에 따라 상반기 중 누적 49억 위안 규모의 SLF(단기유동성 지원창구, 6월말 기준 잔액 10억 위안)를 운영하여 충분한 단기 유동성을 지원

□ 해외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중국 국채 등 고등급 채권을 담보로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Repo 제도를 도입*

* Repo 금리는 7일물 역RP 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되며, 7월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홍콩통화청과 첫 계약 체결 및 거래를 완료했다고 발표

2 구조적 통화신용정책 운영 강화

□ 재대출, 재할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 '5대 분야'(과학기술·녹색·포용적·양로·디지털 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6월말 기준 금융 5대 분야에 대한 구조적 통화정책수단 잔액이 4.6조 위안(3월말 4.3조 위안)을 달성

□ PSL(담보보완대출) 한도 배정을 통해 정책성 개발 금융기관이 신형 정책성 금융 도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소비 인프라 및 교통, 에너지, 지하 관로망 건설·개보수 등 도시 재생 분야 등 중대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3월말 잔액 1.2조 위안 → 6월말 0.8조 위안)

통화신용정책 수단별 유동성 순공급 규모

(억 위안)

		2025년	2026년					
		4분기	1분기	2분기				7월
					4월	5월	6월	
준비금	법정 지급준비율 조정	–	–	–	–	–	–	–
중앙은행 대출	단기 유동성 지원(SLF)	44	−71	2	−7	9	0	−10
	중기유동성공급(MLF)	4,000	10,500	1,000	−2,000	1,000	2,000	1,000
	담보 보충 대출(PSL)	143	1,744	−4,045	−2,000	−1,545	−500	−1,161
	기타 구조적 통화신용정책수단	2,571	2,293	3,424	3,667	1,129	−1,372	1,744
공개시장 운영	역RP 7일물	−10,696	−8,430	7,408	−3,316	4,898	5,826	−2,495
	역RP 기타 만기	13,000	4,000	−11,000	−4,000	−10,000	3,000	7,000
	국채 매매	1,200	2,000	1,000	400	500	100	500
	중앙국고 현금 관리	600	400	1,500	1,300	200	0	300

자료: 인민은행

3 거시건전성 제도 및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 거시건전성 평가(MPA) 체계 개선을 통해 통화정책의 집행 및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리스크 대응 능력과 실물 경제에 대한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의 적용 범위를 비은행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추진

□ 아울러 주식 환매 및 지분 증자 재대출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이 상장기업 및 주요 주주에게 환매 및 지분 확대 관련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상장기업이 자사주 매입, 주주 지분 증대 등을 통해 시가총액 관리를 수행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자본시장 안정을 지원

○ 6월말 기준 금융기관이 체결한 관련 대출 계약 규모는 약 3,900억 위안(3월말 약 3,700억 위안)으로, 이 중 2,100억 위안(1,800억 위안) 이상이 기집행

④ 금리·환율 시장화 개혁 추진 및 위안화 환율 안정화

□ LPR 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대출 종합 자금조달비용 공시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전반적인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추진

* 2026년 6월 기업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약 3.0%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

□ 인민은행은 관리형 변동환율제를 지속 정비하는 동시에,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

○ 2026년 들어 위안화 가치는 전반적으로 주요 통화 대비 절상*되었으며, 은행간 외환 현물시장에서 위안화 직접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

* 26.6년말 기준 위안화의 대 달러, 유로, 파운드, 엔 환율은 25년말 대비 각각 3.2%, 6.0%, 4.7%, 6.5% 절상

2026년 2분기 중 은행간 외환 현물 시장 위안화 대 각 통화별 거래량

(억 위안)

	통화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2분기
1	미국 달러	600,511.35	670,808.63	752,342.79	194,382.58	385,660.19
2	유로	8,320.50	7,710.27	7,838.23	2,289.51	4,467.71
3	홍콩 달러	2,082.93	2,541.46	3,359.89	791.41	1,702.86
4	일본 엔	4,994.78	3,584.46	3,505.64	852.18	1,617.90
5	캐나다 달러	448.76	667.40	375.30	264.33	531.99
6	인도네시아 루피아	26.19	41.24	236.45	156.12	527.13
7	싱가포르 달러	131.31	1,074.02	623.14	160.37	404.07
8	스위스 프랑	159.88	297.32	469.29	217.48	396.14
9	호주 달러	557.25	768.33	438.36	192.52	338.28
10	영국 파운드	364.38	467.44	536.22	182.72	321.77
11	태국 바트	57.60	256.94	186.69	37.78	88.80
12	뉴질랜드 달러	123.97	278.73	175.83	36.45	73.99
13	**한국 원**	**47.51**	**51.96**	**55.97**	**18.24**	**36.31**
14	사우디 리얄	28.48	13.78	15.76	18.42	29.02
15	터키 리라	1.38	1.38	3.02	18.75	21.94
16	멕시코 페소	24.34	10.29	53.22	16.26	21.81
17	노르웨이 크로네	6.19	9.47	55.60	14.19	21.57
18	스웨덴 크로나	53.01	62.27	70.33	13.31	20.26
19	러시아 루블	85.68	101.62	18.48	4.40	18.03
20	말레이시아 링깃	22.97	37.17	38.91	8.19	16.19
21	마카오 파타카	-	50.35	7.55	5.92	11.95
22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7.16	207.50	78.70	5.88	11.35
23	덴마크 크로네	8.83	12.07	53.47	6.62	9.81
24	폴란드 즈워티	4.53	5.07	1.49	0.56	6.73
25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5.57	22.41	11.06	1.81	6.34
26	헝가리 포린트	5.60	1.20	1.37	0.53	1.51

자료: 인민은행, 中国外汇交易中心

2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

1 완화적(适度宽松) 통화신용정책 기조 유지 및 역주기 조절 강화

□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과 물가 수준의 합리적 회복을 통화정책의 중점 고려사항**으로 삼고, 국내외 경제·금융여건과 금융시장 운영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시행의 강도·속도·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

○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가운데,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수급 상황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유동성을 풍부한 수준으로 유지**

○ 단기 금리가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유도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의 강도를 견고히 유지하여, 사회융자 규모와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경제 성장 및 물가 총수준의 예상 목표와 부합하도록 운용

2 구조적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통한 금융 '5대 분야' 지원 강화

□ 각종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함으로써 금융 '5대 분야'(과학기술·녹색·포용적·양로·디지털 금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및 소기업 등 중점 분야 지원**을 **강화**

① **(과학기술 금융)**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개조 재대출 정책과 채권시장 '과학기술판(科技板)'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 금융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며, 수준 높은 과학기술 금융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全 과정 및 생애주기에 걸쳐 금융지원을 강화

② **(녹색 금융)** 녹색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탄소중립 단지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조치를 개선

③ **(포용적 금융)** 민영 및 중소기업 신용보증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여 민영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

— 또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투자·융자 체계를 개선하고, 창업 보증대출 확대, 국가 학자금 대출 정책 등을 통해 주요 계층의 창업·취업·학업을 지원

④ **(양로 금융)** 금융기관이 양로 산업에 대한 신용 지원을 확대하고 양로 수요에 부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고령화 대응 수준을 제고

⑤ **(내수 확대)** 소비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비스업의 역량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진

3 금리·환율 시장화 개혁 심화 및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 개선

□ 금리 시장화 개혁 심화 및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을 개선

○ 중앙은행 정책금리의 시장금리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금리 형성·전달 메커니즘의 시장화를 제고

○ 금리정책의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금리정책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금리책정 능력을 제고

— 시장금리 자율규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비합리적 경쟁과 통화정책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대출금리 책정 기준을 다변화하고 기업대출 금융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시장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금융중개 비용을 낮춰 사회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가운데, 환율 형성 과정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환율이 거시경제와 국제수지를 조절하는 '자동안정장치'(自动稳定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

○ 국경간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외환시장의 복원력을 제고

○ 시장 기대 안정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방지 등을 통해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유지

○ 기업 및 금융기관의 환율 리스크에 대한 중립적 관리 인식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

4 금융시장 제도 구축과 고수준 대외 개방 가속화

□ **채권시장의 기능과 실물경제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대외개방**을 **가속화**

○ **채권시장 '과학기술판'을 고품질로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 및 민영기업 채권 리스크 분담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민영 과학기술 기업 및 사모펀드 기관의 채권 발행 및 자금조달을 지원**

○ 회사채 법제 정비, 채권시장의 다층적 발전, 장외 채권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발행 가격결정과 인수 및 시장조성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주요 분야 및 업종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도 강화

○ 대외개방 측면에서는 해외 주체의 **판다본드 발행 지원, 역외 위안화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발표 역외 위안화 결제 정책***을 통합·최적화하여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

* 국경 간 투자 및 해외 대출에 대한 자금 관리 강화, 국경 간 무역·투자 시 위안화 사용 확대, 대외 통화 협력 심화, 역외 위안화 시장 발전 등 국경 간 무역·투자 고수준 개방 시범 사업을 추진(26.1분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5 금융 리스크 예방·해소 및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 금융리스크 예방과 해소를 위해 **포괄적인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금융리스크 예방 및 처리 메커니즘**을 **개선**

○ 거시적·역주기적·전염방지 관점에서 금융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관리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며,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다양화

○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금융수단을 혁신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 체계 구축을 심화하는 가운데, 비은행권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

—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선정된 은행의 금융리스크 관리의 선제적 대응 기능을 강화

—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에 대한 국경간 위기관리그룹(C-CMG) 체계를 개선하고, 국경간 감독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

○ 시장화 및 법치 원칙에 따라 중점 분야의 금융 리스크 처리를 신중하고 질서 있게 추진

— 금융안정 체계를 강화하고 예금보험의 금융리스크 대응 기능을 전문화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 및 금융안정보장기금의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예비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금융리스크 대응 재원을 충분히 확보